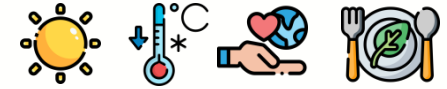




더 자스민 일보(一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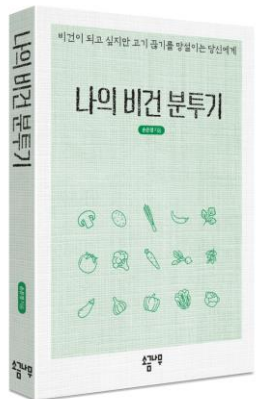
독자의 행복을 바라는 글로 전하는 마음♥



- "밑줄 클릭"만으로 본문 열람 가능합니다 -

Since 2020

[출간소식] 1년 만의 신작 《나의 비건 분투기》



비건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**다름 아닌 건강 때문이다**. 인간과 육식은 조화롭지 못하다. 부조화는 병을 초래한다. 그러다 종차별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. 나와 동물 그리고 지구, 전체가 달려 있는 일. 나를 이롭게 함이 전체에도 이롭다면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.

말은 쉽게 하지만 거뜬히 결심을 들어 올린 건 아니다. 고기 끊고 살기가 어디 쉽나, 평생 육식에 길들여 온 삶을. 삼겹살 앞에 망설여도 봤고 과연 없이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묻고 또 묻던 날. 그런 나 같을 당신을 위해 쓰인 책이다. 먼저 분투해본 자로서, 지속하려는 의지만으로 기꺼이 여겨져야 할 우리에게.

《나의 비건 분투기》 선물하기
비건 장보기 : 비건은 시장에 가 주로 이런 것들을 사지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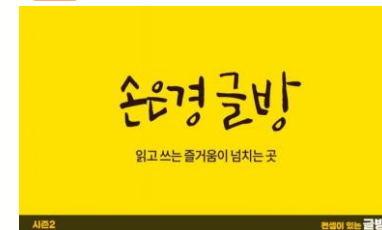
읽기는 **쓰**기를 촉발한다. 독서는 잘 쓰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쓰도록 하는 동력인 것만은 분명하다. 어느 날 그들이 말했다. "책을 읽다 문득 '나도 이런 책 써보고 싶다'며 내면에 어떤 욕구 같은 것이 소용돌이치더라고요. 그렇게 책 쓰는 건 한참을 바라던 일이었어요. 그러다 이제야 용기 내요." 누군가 선행해 쓴 글이 우리를 쓰게 하므로, **글이 글을 낳음에 다름 아니다**.



먼슬리 미니특강

- 주제 : **책 한 권이 탄생하기까지 - 출간 여정**
- 날짜 : **2022.06.23(목) 밤 9시 (다음주 블로그에 공지 예정)**

“문장, 제대로 조각해 봅시다!”



오는 7월 5일(화) 글방 시즌2가 시작된다. 시즌1에 참여한 11명의 작가님 응원에 힘입어 시즌2까지 오픈할 수 있던 것이다. 컨셉이 있는 **손은경 글방 시즌2** 주제는 “창발하는 경탄”으로, 문장 제대로 조각해 볼 예정이다. 함께 글 성장하기를 원하는 작가님이라면 알바트로스의 두 날개 활짝 펼친 것만큼 환영이다.



- 다음은 글에 관한, **읽어 나쁠 것 없는 사족이다.**
- 단어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독자의 입입 : **열람**
- 공감가는 글쓰기 기본 원칙 2가지 : **열람**
- 책 출간하고 싶다면 잊지 마세요 : **열람**

새 활동 소식 : **유튜브 오픈!**



내 채널
손은경 창작소

유튜브명 : 손은경 창작소

결국 시작하고야 말았다, 유튜브. 글만 쓰기에 24시간은 모자라다며 한사코 미뤘었다. 실은 해야 하는가에 퀘스천마크를 달고 있던 셈인데, 그러다 이 상태로 지속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은 내 글이 자칫 심해층까지 가라앉아 버릴지 모르겠다는 아찔함이. 개설 후 지금까지 3화를 업로드했다. 비록 앵앵대는 듯 마이크를 통과한 어리고 가는 목소리가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봐 줄만 하다. '읽어 내 글 알리기 프로젝트'라는 부제를 지닌 이 유튜브가 글을 매개로 창작하는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 나는 좀 내 글을 알려야겠다.

유튜브 손은경 창작소 살리기

